

학교부적용 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수업 적용 사례 연구

오은영* · 최새은**1)

*중문중학교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A Case Study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s with School-Maladjustment

Oh, EunYoung* · Choi, Saeun**1)

**Teacher, Jungmun Middle School*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high-school maladjusted students. To this purpose, a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was applied to ten high-school maladjusted students in an alternative(*Dae-an*) class in Jeju. Findings from class observations and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with school maladjustment recognized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ositive self-concepts and had an opportunity for self-growth through parenting education program. Second, students with school maladjustment obtained understanding about their family of origin and confidence for forming their future families. Third, advance learning about meanings and roles of being a parent provided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know importance of responsible sexual behavior. Fourth, practices of basic care with a replica of a new-born baby enhanced participation and concentration level of students with school maladjustment which became extremely effective in obtaining necessary knowledge for the basic care. Fifth, information provision for parent roles according to children's different developmental levels let students recognize that parent's roles change as their children grow and opened a way to grasp the need of parent education. Sixth, education and repetitive practices on reflective listening helped students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which entailed expanding their human relations. Seventh, passing-down of emotion and understanding on child abuse allowed students recognize risks of child abuse as well as the importance and need of skills for controlling emotion. This study sheds lights on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a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maladjusted or vulnerable students as an effective program for school drop-out prevention.

Key words: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parenting education for adolescents),
학교부적용 학생(students with school-maladjustment), 사례 연구(case study)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교신저자: Choi Saeu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ey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8173, Republic of Korea, Tel: 043-230-3734, Fax: 043-231-4087, E-mail: Saeun@knue.ac.kr

I. 서론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청소년기를 대부분 학교에서 보낸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기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학업중단의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의 범주에 들지 않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등의 사유로 학교생활을 중도에 그만둔 '학업중단자'는 매우 취약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학업 및 대인관계 부적응, 학교폭력이나 학칙 위반으로 인한 퇴학, 제적 및 유예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대략 38%를 차지한다(Ministry of Education [MOE], 2016). 2016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 및 위기 결과분석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청소년이 77만여 명에 이르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위기 청소년들은 자살 시도, 성 문제, 가출, 학교폭력, 약물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비율이 일반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문제 유형에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음으로 급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예방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Hwang, Kim, Kang, Son & Kim, 2016).

최근 학업중단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서 발생하는 여러 명시적, 잠재적 사회문제에 주목하여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운영, 연구학교 운영, 심리상담 프로그램, 문화·예술·스포츠 체험활동,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Lee(2007)는 우리나라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를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예방 체제 및 대안 프로그램의 부족이라고 했다. 학교 및 정부 지원 체제는 주로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 취업,

복교 등에 중심을 둔 사후 대책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학업중단 문제를 예방하는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학교부적응 학생을 도와주고, 계속적인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와 더불어 가정은 청소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미시체계로써, 가정생활 안에서 긍정적 경험은 자아개념, 긍정적 가치관 등 인간의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이 이뤄지는 1차적 교육의 장(場)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수행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부모와의 갈등이 크거나(Lim, 2013), 부모의 학업 및 정서적 지원이 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5). 이와 같이 가정과 학교 환경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부적응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16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은 갈등적 부모-자녀 관계의 증가가 빚어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주목한 결과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환경에 부적응을 보이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취약가정에서는 취약가정 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부모교육이 중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만큼 취약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예비부모교육부터 시작하여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예비부모의 경우에도 예비부부나 군인, 대학생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일찍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에서도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나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에서도 명시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2016).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지난 1~2년 사이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공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MOGEF, 2016).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체 프로그램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육 자료(PPT)를 공개하여 청소년 대상의 예비부모교육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다만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예비부모교육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적응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거나 가정 내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학생에 대한 부모교육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인 것이다. 학교부적응 학생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과 올바른 양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훗날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자존감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Seo, 2017),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교육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정립하고, 훗날 올바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의 문제해결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면 학업중단 예방교육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에게 실시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여 학생들의 자아개념 및 가치관의 변화, 부모됨에 대한 정보획득,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신념의 변화(자아개념, 가족가치관)를 경험하였는가?
 연구문제 2.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됨에 관한 정보(계획적인 임신, 기초돌봄, 자녀발달에 따른 부모역할)를 획득하였는가?
 연구문제 3.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의사소통, 감정조절능력)이 향상되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개념과 영향 요인

학교부적응에 대한 개념은 부적응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Lee(2009)에 의하면 1991년에서 1997년 시기에 교사는 낙인이론에 근거하여 불안정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학교생활부적응자라고 대상화하면서 교정의 대상,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면, 1998년 이후부터는 학교부적응 학생을 낙인이나 비난보다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청소년들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문제행동을 바라보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생태학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부적응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청소년의 개인적 성격 및 심리·정서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가족 해체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가정환경 요인, 학교에 대한 불만, 낮은 학업성취도 등과 같은 학교 요인에 의해 학생의 개인적 욕구와 학교라는 환경과의 갈등에서 오는 심리적 상태 및 학교가 기대하는 행위로부터의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학교부적응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주요 요인으로는 개인, 가정, 학교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높은 충동성이나 스트레스 대처 능력 부족도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Byun, 2004).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으로는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족 형태와 같은 가정환경의 구조적 측면과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의사소통과 같은 기능적 측면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빈곤 가정이나 취약한 가족 형태에서 자라난 학생들은 학교부적응을 경험하기 더 쉽다(Lee, 2009; Sun, 2017), 부모와의 갈등이나 부정적 의사소통을 보이는 경우 학교 부적응을 초래하기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Han, 2011). 이에 반하여, 부모의 학업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은 학교부적응과 부적응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5).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가족의 구조적 측면보다는 부모-자녀 관계나 학업 진로 지원 등 가정의 기능적 측면이 학교부적응과

더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Ryu & Shin, 2011). 학교부적응에는 학교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현장에서 무단결석, 무단결과, 학교규칙 거부, 교사와의 갈등 등 학교생활 부적응의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은 학교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감정조절 미흡 및 부정적인 의사소통으로 교사 혹은 친구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Sim, 2015).

따라서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돕고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가족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향상시키며 친구 및 교사와 같은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에는 예비부모교육의 대상이 출산을 앞둔 성인 부부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중·고등학생들부터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문제를 접하면서 예방적 성격의 부모교육이 청소년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Jun, Lee, Yu, Wang, & Choi,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부모됨을 돕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당시의 사회적 맥락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하므로 최근 10년간으로 기간을 한정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연구 7편을 고찰하였다. 선정된 선행연구는 학술연구서비스(RISS)에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일반청소년 대상 연구 4편, 시설청소년과 같이 위기에 놓여있는 청소년 대상 연구 2편을 포함한 6편과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총 7편의 내용요소와 회기 구성, 효과 등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서 Choi(2013)는 가족 영역(가족생활주기, 결혼태도, 다양한 가족유형, 인간의 발달 단계)과 나 영역(자기 이해, 사춘기), 성 영역(성, 피임, 출산 및 산후 대책)과 양육 영역(의사소통 훈련, 학대 및 가정폭력, 양육실습)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 대해 13차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Kwon(2017)은 가족형태의 변화(다양한 가족형태, 다문화가족), 가족가치관의 변화(결혼 및 자녀의 의미), 가족갈등(부부, 부모자녀 갈등 해결방안)과 건강한 가정(아동 학대 예방)의 네 가지 내용요소에 대해 하브루타 수업 방법을 활용한 9차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Noh, Cho와 Chae(2017)은 부모됨, 배우자 선택과 임신과 출산,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돌봄, 부모-자녀 관계, 가정생활 내 자녀 안전,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관련 내용 요소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정교과 기반의 17차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MOGEF(2016)에서는 부모됨의 이해와 부모역할의 실제 영역을 통해 청소년 대상의 17차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개방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부모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많았고,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보호시설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된 무기력 감소를 위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과(Ji, 2011) 시설 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Bae & Kang, 2008) 정도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 즉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학교 내의 부적응 학생은 예비부모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의 경우 무단결석, 조퇴, 결과 등의 이유로 선수 학습 요소가 결손되고 학습 부진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고등학생 대상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MOGEF, 2016)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차시별 내용과 활동을 급간별 수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중학생들에게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차시의 구성을 부모됨의 준비와 실천으로 나누어

Table 1.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Study	Components	# of units	Results/Effectiveness
Noh, H. (2017)	부모됨(부모됨의 의미, 저출산, 가족생활설계) 배우자 선택(결혼의 의미, 사랑) 임신과 출산(계획임신, 임신 중 생활, 태내발달, 건강한 출산) 자녀 돌보기(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돌봄) 부모-자녀관계(양육, 청소년 생활안전, 아동학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가족문화) 가정생활 내 자녀 안전(자녀발달단계 특징, 주거환경과 안전) 부모와 건강가정(건강가정, 자녀양육지원 체계) 돌봄실습(영아 돌보기 실습, 부모됨의 기쁨과 보람) 양육지원서비스 개발실습(양육지원 체계)	17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정교과 기반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Kwon, D. (2017)	가족형태의 변화(다양한 가족형태, 다문화가족) 가족가치관의 변화(결혼 및 자녀의 의미) 가족갈등(부부, 부모자녀 갈등 해별방안) 건강한 가정(아동 학대 예방)	9	하브루타 수업이 올바른 부모됨 및 미래 부모로서의 다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줌
Choi, C. (2014)	가족영역(가족생활주기, 결혼태도, 다양한 가족유형, 인간의 발달단계) 나영역(긍정적인 자기 이해, 사춘기) 성영역(성 이해, 성관계, 피임, 출산 및 산후 대책) 양육(의사소통 훈련, 학대 및 가정폭력, 양육실습)	13	'가족', '결혼', '나', '성', '양육' 영역의 지식과 태도 측면이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함
Kim, J., Kang, J., & Park, S. (2011)	다름 존중(세대, 성별, 종교차이 등) 대화기술 기르기(경청, 의사소통) 자기관리 능력기르기(성, 약물, 게임중독,) 책임과 헌신(부모책임, 아동의 권리, 바람직한 부모역할)	1	의사소통기술 증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올바른 부모됨에 대한 인식 및 미래 부모로서의 다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변화함
Ji, S. (2011)	부모 자신 이해 학습된 무기력 감소(자서전 만들기, 의사소통, 부정적 감정 압축) 부모역할 수행(영아 양육방법, 부모가치관)	8	학습된 무기력 감소 및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함
Bae, E. (2007)	나의 이해와 성장(자아개념, 성,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원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분노조절, 갈등해결, 생명돌봄) 부모역할정립(건강한 가족, 부모역할, 의사소통, 가족요리, 부부역할정립) 부모역할체험단계(부모역할 체험)	12	자아존중감, 원가족에 대한 분노, 미래 이상적 가족상 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MOGEF (2016)	부모됨의 이해(부모됨의 의미, 자기 이해, 아버지 됨의 이해) 행복한 부부와 부모됨(성교육, 성숙한 부모 및 사랑, 배우자 선택과 결혼, 부모역할, 건강한 가족문화) 부모역할의 실제(자녀발달단계와 부모역할, 돌봄의 이해,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애착·놀이·의사소통), 혼육 안전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자녀의 물리적, 정서적 안전, 자녀존중과 아동의 인권)	17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수 자료를 구성하여 학교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함

다양한 내용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따라서 접근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내용 요소와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MOGEF, 2016)을 토대로 학교부적응 학생의 수준 및 교육 목적에 맞도록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 요소 선택과 교수·학습과정안을 재구성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충실성(fidelity)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평가한다면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부모교육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가족생활 교육과는 달리 학교 교육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학교교육과정 교과과정의 기술·가정교과의 가정영역이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2015개정 실과(기술·가정)의 가정영역의 교과 성격을 살펴보면,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자의 실천적 경험을 통해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삶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데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생애에서 부모됨과 그에

다른 올바른 부모역할 수행은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중요한 문제이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 사회의 바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015개정 실과(기술·가정) 가정영역의 내용 체계에서는 초·중·고 모두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의 세 개의 영역을 두고 각 영역별로 두 개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예비부모교육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는 부모됨과는 거리가 있어 고등학교처럼 부모됨의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진 않았지만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청소년 자아발달’,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관리’, ‘안전한 삶을 위한 폭력 예방’, ‘생애설계’, ‘자기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부모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배우자 선택을 위한 사랑과 결혼’,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가족의 안전사고 예방’, ‘가정생활 지원체계’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영역 중 ‘인간 발달과 가족’이 예비부모교육 내용의 핵심이고, 다른 두 개의 영역 또한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로 가정과 전체 교육과정에 예비부모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부모교육은 교육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므로 교육대상자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처한 환경, 여건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된 부모교육이 널리 공인된 교육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내므로 학교환경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교과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체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적용 사례

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제주도 일반계 A여고 대안교실의 학생이다. 대안교실이란 학생들의 학교생활, 관계개선, 적성 및 소질개발 등 학교 적응력 향상의 목적과 함께 위기 학생의 학교부적응 해소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운영되는 교실이다.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부모 동의를 받아 정규교과 시간에 별도로 마련된 대안교실에 모여 대안교실 운영자가 계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연구자는 제주시에 소재한 A여고에서 3년 동안 학업중단 예방 연구학교 운영 및 대안교실 업무 담당자로서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관찰과 면접 등이 이루어지는 사례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했는가의 여부가 조사 연구의 성공의 관건이 되고, 심층 면접이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연구일 때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Babbie, 2013), 연구참여자는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변화를 깊이 관찰하고 상호작용하였으며,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1~3학년 전체 15명으로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연구 참여자가 같은 교실에서 학생 간 상호작용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학생의 성향과 친밀도를 고려해 동백그룹(Camellia Group: CG)과 수선화그룹(Narcissus Group: NG)으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동백그룹은 흡연, 음주, 학교규칙 위반 등 일탈 행동을 공통적으로 보인 7명의 학생으로 구성했고, 구체적인 참여자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수선화그룹은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무기력, 우울 증 증세의 특성을 보이는 8명의 학생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참여자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동백그룹(CG)은 무단결과, 무단결석, 무단조퇴 등 프로그램 종결까지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교육회기에서 3차시 이상 프로그램에 미참여한 학생 3명, 수선화그룹(NG)에서는 자퇴나 무단결석을 한 2명 학생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10명이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선정 및 구성

학교부적응 학생은 잦은 무단결석, 조퇴, 결과를 보이기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CG

Case ID	Grade (age)	Parent living with	Siblings	Peer relations	Smoking	Alcohol	Violation of school regulation
A	3(19)	mother	none	Good	Y	Y	Y
B	3(19)	mother step-dad	1 OS	Good	Y	Y	Y
C	3(19)	parents	2 OS 1 YS 1 YB	Good	Y	Y	Y
D	3(19)	parents	1YB	Good	Y	Y	Y

Table 3.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NG

Case ID	Grade (age)	Parent living with	Siblings	Peer relations	Smoking	Alcohol	Violation of school regulation
E	3(19)	parents	1 YB	Bad	N	N	Y
F	2(19)	parents	1 OS	Bad	Y	N	N
G	2(18)	parents	2 OS 1 YB	Bad	N	N	N
H	1(17)	parents	2 OB	Bad	N	N	N
I	1(17)	parents	1 YB	Bad	N	N	N
J	1(17)	parents	3 YB	Bad	N	N	N

때문에 선수 학습 요소의 결손으로 인하여 학습부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교육 통계에 따르면, 일반고에서 학교부적응으로 자퇴하는 전체 학생(4,410명) 중 학습 부진, 무동기, 무의욕적 태도 등의 학업 관련 부적응으로 인해 자퇴하는 학생은 1,973명으로 약 47.7%를 차지한다(MOE, 2016). MOGEF(2016)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은 최근에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본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차시별 내용과 활동의 선택을 통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 부적응 및 선수 학습 결손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차시별로 교수·학습과정안, 교수자료(PPT), 교수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 및 참고자료 안내, 활동지, 활동 진행 시 참고 및 유의사항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시하고 있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으로 연구결과를 확산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2개의 대영역(부모

됨의 준비영역, 부모됨의 실천영역), 4개의 중영역(성숙한 부모됨의 이해, 행복한 부부와 부모됨, 부모역할의 실제, 안전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17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시별 프로그램은 50분 수업 내용으로 도입-전개-정리로 구조화되어 있다.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전략 및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KICE], 2018), 학습부진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급일 경우 개인별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소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등학교 수업의 학습 분량을 학습 부진 학생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적정 학습량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예비부모교육 수업 참여자 15명 중 동백그룹 8명, 수선화그룹 7명으로 소규모로 나누어 편성하고,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자아개념과 가족가치관과 같은 신념의 변화, 임신, 출산, 양육 관련한 정보의 획득, 그리고 의사소통 및 감정조절능력과 같은 문제해결능력의 함양이라는 3가지 영역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Chung & Chung, 2016) 여성가

족부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17차시 중 9차시만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대안교실에서 설정하고 있는 학습시간과 학생의 수준, 필요를 고려하여 17차시 중 9차시를 선정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하기 전 학생들과 개별 사전면담을 진행하면서 17차시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명과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학습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였다. 더불어 연구자가 자아개념과 가족가치관이 라는 신념의 변화, 부모됨에 관한 정보획득, 문제해결능력 함양이라는 예비부모교육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영역별로 최소 3차시씩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과 상의한 결과 최종 9차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9차시는 <Table 4>와 같다.

학습부진 학생 대상의 교육에서는 교사의 관심과 수업 중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수업 참여와 학습 흥미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운영이 중요하다(KICE, 2018). 이에 학교부적응 학생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흥미와 참여 동기를 높이고, 예비부모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 선정한 9차시 중 4차시(예비부모를 위한 성교육), 6차시(기초돌봄의 이해), 8차시(자녀의 정서적안전과 부모의 공감)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요구와 흥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고, 나머지 여섯 차시는 내용 구성이나

진행 방식에 있어서 처음 개발된 프로그램의 기획과 구성에 부합하도록 충실성(fidelity)을 고려하였다.

재구성이 이루어진 세 차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시 ‘건강한 성, 소중한 생명 완소남!, 완소녀!’ 프로그램은 건강한 성의 의미와 책임 있는 성의 중요성을 학습목표로 설정하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피임에 대한 내용은 부족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피임 실패율이 높지 않아 임신한 여학생 10명 중 8명은 낙태수술을 할만큼(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6) 계획적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4차시 수업에서는 계획적인 임신을 위한 방법으로 월경주기법, 점액관찰법, 사전·사후 피임약, 콘돔 사용법 실습 등 피임에 대한 학습 내용을 추가하였다.

6차시(‘돌봄의 지식과 기술, 아는 것이 힘!’)에는 기초돌봄의 중요성, 영아의 신체적 특징, 예비부모로서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자질 키우기를 학습목표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고 직접 체험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양육의 어려움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계란돌보기, 돌봄의 필요한 창의 기계 만들기, 아기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베이비 신호 만들기 3개의 활동이 구안되었다. 기술·가정의 인간 발달과 가족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는 ‘인형, 육아용품 등을

Table 4.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s with school-maladjustment

연구문제	차시	소 영역	프로그램명
자아개념 및 가족가치관	1	부모됨의 의미와 준비	예비부모 사랑, 로그인
	2	자기이해를 통한 부모됨의 준비	고고생-나를 알Go, 나를 믿Go, 나를 사랑하Go!
	3	배우자 선택과 결혼	결혼, 나와 너를 ‘우리’로 만들다!
부모됨에 관한 정보획득	4	예비부모를 위한 성교육	건강한 성, 소중한 생명 완소남! 완소녀
	5	자녀의 발달 단계와 부모역할	쑥쑥 자라는 우리 아이! ‘부모’웃을 바꿔 입어요
	6	기초 돌봄의 이해	돌봄의 지식과 기술, 아는 것이 힘!
문제해결 능력 함양	7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 소통증진	똥이 땀! 부모-자녀, 대화로 통 通하라!
	8	자녀의 정서적 안전과 부모의 공감	아이의 마음을 읽는 부모 되기
	9	자녀존중과 아동의 인권	부모는 아동 ‘안심(zone)’

활용하여 자녀 돌보기를 위한 친밀감과 공감 능력을 기르고, 아기를 안거나 목욕시키는 활동을 체험해봄으로써 자녀 돌보기의 실천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하였다. 이에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3개의 활동 대신 자녀 돌보기에 대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2인 1조로 편성하고 신생아 모형을 제공하여 우유먹이기,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안기, 트림시키기 등 기초돌봄에 필요한 돌보기 기술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대체하여 운영하였다.

8차시(아이의 마음을 읽는 부모 되기)도 감정 표현과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적응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감 카드를 활용한 활동을 추가하는 방식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 차시에서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안전한 정서적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녀의 감정에 대한 바람직한 부모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 감정에 대한 학습내용과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욕설', '짜증', '화남' 등으로 표현하는 경향과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조절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등나무에서 연구개발한 공감대화카드 중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 자료수집

사례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므로, 관찰, 심층면담, 연구자의 연구일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1) 관찰

연구자가 직접 예비부모교육 수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하고, 한 차시 수업이 종료될 때마다 학생들의 반응, 특정 사건과 활동들에 대해서 관찰일지에 기록하였다.

(2) 사전·사후 면담

연구자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개념과 가족가치관, 부모됨에 관한 정보 획득, 문제해결 능력 등 연구문제를 참고하여 교사가 미리 작성한 질문 목록

지를 사용하였고, 사후 면담은 사전 면담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면담은 사전·사후 각각 일대일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하였고, 면담 장소인 위클래스에 도착한 후 녹취에 대한 참여자 동의를 받고 면담 내용은 모두 녹취, 전사했다.

(3) 연구일지

연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관찰, 면담 전사, 분석하면서 당시 상황이나 참여자의 행동, 연구자의 궁금증 등을 연구일지에 기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자는 자료분석을 위해 다음의 4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녹음된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과 수업 참여 관찰의 내용이 기록된 연구일지 내용을 한글 파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컴퓨터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저장하여 안전성을 보장하였다. 2단계에서는 전사화된 자료를 읽어 나가며 자료가 의미하는 부분이 잘 드러나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삭제해 나가며 자료를 요약하였다. 3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서로 반복되거나 연관이 되는 내용과 현상들을 연결 짓는 구조화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례별로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는 내용에 대해서는 메모해 두고,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4단계에서는 사례별로 드러나는 반복적인 주제를 발견하고, 반복된 주제에 대한 범주를 만들고, 범주를 합산하는 과정을 분석이 끝날 때까지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아개념과 가족가치관에 있어서의 신념의 변화

1) 자아개념

참여자 대부분은 사전 면담을 통해 가족원과의 갈등, 경제적 빈곤,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삶에 대한 무기력을 표현했고,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제 행동에 후회도 많고 늘 부족해 보여요. (사례B)
전 제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례D)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불행이에요. (사례G)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은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2차시 ‘자기이해를 통한 부모됨’을 통해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며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훗날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가 부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닮기보다는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가졌으면 하는 참여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몇몇의 참여자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운동하기, 어깨 펴고 다니기, 음식 먹기 등을 실천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예비부모교육이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예비부모교육을 통해서 제일 많이 변한 건 **저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저한테는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저 먼저 생각하고 아끼려고 노력해요.** (사례C)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저를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존감이 낮으면 아기도 자존감도 낮아지니까 **제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해요.** (사례H)

예전에는 저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친구 장점 써주는 거? 그거 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더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젠 뭘 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음식 먹고 있어요. (사례J)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자아 개념은 부정적이고 취약하였으나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자신을 아끼고 돌보려는 마음에서부

터 출발하여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가족가치관

참여자 대부분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해체, 한부모 가족, 가정폭력, 부모의 알콜중독 등으로 가족 내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가족원간의 갈등은 참여자로 하여금 가족과 대화 단절, 폭력, 가족원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가족 하면 떠오르는 건 ‘갈등이 많은 존재’ 그리고 ‘짜증’이에요. (사례A)
왜 부모님은 나만 차별하는 것일까요?. (사례E)
엄마가 아침부터 술 마시고 어린이에 취급할 때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왜 부모님은 절 이렇게 키웠을까요? (사례F)

그러나 참여자들은 본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가족과의 갈등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동력은 예비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의 입장에서만 사고하고, 불편함이나 불만을 토로했던 것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부모의 입장에 서보고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과 부모됨의 의미, 역할 등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부모들도 겪었을 어려움을 처음으로 가늠해볼 수 있었던 것이다.

예비부모교육 참여하면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사례H)
이 예비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뭐라고 할 때 솔직히 싫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가 이해**가 되고 좀 그래요. (사례E)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그냥 사는구나 했는데 **엄마 아빠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게 됐어요.** (사례D)

부모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참여자 대부분은 미래 가족 형성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일차적으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하면서 **엄마처럼은 하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A)

예전에는 결혼하면 아기 돌볼 때 짜증 낼까봐 걱정스러웠거든요? 지금도 화났을 때 푸는 방법을 찾진 못했지만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게 생겨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사례J)

이처럼 참여자들은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되고, 아이를 키우고, 미래의 가족을 꿈꾸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씩 줄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에는 미래의 가족 형성에 필요한 부모역할, 배우자 선택, 계획적인 임신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 미래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부모됨과 관련한 정보획득

1) 계획적 임신

참여자 대부분은 예비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전에 학교 및 외부기관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피임 방법에 대해서는 ‘콘돔’, ‘피임약’ 등 단어만 언급할 뿐 사용 방법이나 복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매우 부족했다.

질외사정 하면 90%는 임신이 되지 않지 않아요?. (사례F)

콘돔 사용법을 여자가 알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례D)

피임약, 콘돔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례B)

학교부적응 학생은 성 경험률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편인데 성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부족하고 부모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지식 또한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비부모교육 참여자 전원은 수업 내용 중 가장 유익했던 내용으로 계획적인 임신을 위한 피임 방법을 이야기했다.

제일 기억에 남은 것은 성교육이에요. 솔직히 피임 배우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피임방법 알고 있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사례D)

콘돔도 배우고, 성적 자기결정권? 그것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성관계 맺자고 하면 피임하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I)

이처럼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계획적 임신과 관련된 부모됨의 정보를 얻는 효과를 보였다.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진술을 통해 콘돔사용법 실습, 피임약 복용방법에 대한 자세하고 반복적인 설명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피임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집단교육 형식으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추상적으로 다루어진 내용과는 달리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성에 관한 지식이나 피임과 관련된 교육을 단편적인 지식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부모됨의 의미와 역할을 배우면서 책임 있는 성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병행하여 학생들이 보다 집중하여 참여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예전에는 임신하든지 말든지 그냥 낳으면 되겠지 했는데 임신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사례D)

중학교 때는 피임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어서 피임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니까 피임을 더 하게 되겠죠? 무섭고 **지금은 책임을 지기 힘드니까요.** 이거 배우면서 책임감이 더 생겼어요. (사례B)

이와 같이 성교육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과는 달리 부모됨의 의미, 역할을 배우면서 책임 있는 성행동의 중요성과 연계시키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부모됨의 의미, 역할에 대한 내용 요소를 선수 학습으로 구성하여 성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자녀 기초돌봄

참여자들은 기초 돌봄에 대한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먹이기, 안아주기, 기저귀 갈기 등에서는 조금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모른다고 했다. 실제로 신생아 모형으로 실습 진행 시 진짜 아기가 아닌 모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로 돌봄을 해본 경험이 적고, 사촌 동생을 돌보다가 실수한 적이 있어서 돌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뭘 해야 하는지 알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례C)
아기 트림 시키는 것 빼고는 모르겠어요. (사례D)
혹시 아기가 잘못 뭘까 봐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사례B)

그러나 예비부모교육 참여자들이 이전 수업의 차시 예고에서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교사가 특별한 동기유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참여자 스스로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차시가 6차시 ‘기초돌봄의 이해’였다. 사후면담에서도 참여자 전원은 기초돌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연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기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기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사례G)

이와 같이 학생들이 직접 신생아 모형으로 신체적 특징, 감각기능, 기초돌봄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2인 1조로 짝을 지어 한 사람씩 돌봄에 대한 실습이 기초돌봄에 대한 내용을 익히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기초돌봄 관련 교육을 할 때는 설명이 아닌 학생이 주도하는 신생아 모형 실습 위주로 운영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역할

사전면담에서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참여자 전원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역할 변화의 필요성도 인지하지 못했고,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도 매우 부족했다.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역할은 보호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그다음은 모르겠어요. (사례D)
어린이집 다닐 때는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해요. (사례G)
그냥 옆에 있어 주고 잘 들어주는 것만 알아요 (사례H)

다른 차시와 달리 교사의 설명이 많아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집중력이 저하됐고 ‘부모 역할 찾기 원카드 게임’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해 사후면담에서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은 참여자 전원이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었다.

유아기 때는 자아존중감이 만땅이니까 칭찬 많이 해 주고, 그리고 이때 교육도 해줘야 해요. 초등학교 가면 격려해주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잘 물어봐야 돼요. **암튼 아이가 크면 부모도 꼭 달라져야 돼요** (사례I)

또한, 몇몇의 참여자는 영아기 애착형성과 기초돌봄에 대해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역할 내용에 이어 기초돌봄을 학습하면서 영아기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설명과 돌봄에 필요한 기술들을 실습하면서 영아기 발달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발달 단계에서 **영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정서적으로 좋아지려면 **애착 형성이 중요하니까요**. (사례F)

영아기 때는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그런 거 다 해줘야 해요. (사례A)

참여자 대부분은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못했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달라져야 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진술을 통해 자녀발달단계별 부모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부모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명 위주보다는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등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재구성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의사소통 및 감정조절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1) 의사소통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배움에 대한 즐거움도 있어야겠지만 원만한 또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고, 이러한 어려움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가족, 친구, 교사와 갈등을 빚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실제로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은 자기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인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해요. 이런 점이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갈등으로 이어진 적이 많아요. (사례A)

대화할 때 생각하는 걸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겠고 듣는 사람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례A,D)
저는 의견이 잘 맞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친구 말을 하지 않아요. (사례G)

그러나 참여자들은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 중 듣기 기술이 향상되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구체적으로 반영적 경청의 좋은 예인 ‘컴퓨터 대화 프로그램 엘리자 따라하기’ 실습을 통해 주의 깊게 듣고 감정과 상황에 반응해주는 것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뭐라고 했지? 반복해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할 때 감정? 공감 이거 잘해야 돼요. (사례I)

요즘 남자친구랑 많이 싸웠는데 이거 반영적 경청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술술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게 됐어요**. (사례C)

이와 같이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반영적 경청의 의미와 방법을 익힌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졌다.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으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평소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에서 흔히 하게 되는 잘못을 이해시키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습득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부모교육 수업 참여 이후 참여자 대부분은 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의 실천방법으로 반영적 경청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한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부모의 보살핌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부모의 역할에서 공감 능력은 아주 중요하며, 부모의 공감을 받지 못한 자녀는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몇몇의 학생은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공감이라고 했다.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감’, ‘그랬구나’, 이해해 주는 거, 그리고 ‘반응’이 중요해요**. 동생이 말을 더듬더듬해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들어 주려고 노력해요. (사례J)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경청이에요. 예전에 힘들다

고 얘기하면 힘내!라고 했는데 이제는 힘들구나.라고 얘기해야죠 (사례A)

이러한 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8차시 ‘자녀의 정서적 안전과 부모의 공감’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전을 위해서는 부모의 공감이 중요하고, 공감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7차시에서 학습했던 반영적 경청의 내용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과 실습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나 전달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시에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진 않았으나 공감을 위한 반영적 경청 실습에는 학생들이 진지하게 참여하였다. 이는 공감이 대인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감의 방법으로 반영적 경청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감정조절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감정조절 특히 분노조절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진술하였다. 교사의 잔소리, 작은 꾸지람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욕을 하거나 학교 밖을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스트레스받는 상황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못 견뎠다. 친구관계의 어려움과 학교생활의 무기력으로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몇몇의 참여자는 조울증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평소 제 성격이 온순한 것 같은데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조울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족과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사례C)
전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울고 미친 사람 같아요. (사례B)

지난번에 언니랑 다툼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부엌에서 칼을 빼려고 했는데 형부가 말렸어요. 너무 화가 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사례G)

대부분의 참여자는 8차시 수업 시작 시 자신이 알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했을 때는 짜증, 화남, 행복 등 5개 정도의 감정만을 찾아낼 뿐 5개 이상 감정을 제시한

참여자는 사례 H뿐이었다. 이후 교사가 68개의 감정카드를 제시했을 때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수업에도 집중하여 참여하였다.

이렇게 많은 감정이 있는데 왜 저는 짜증 화남만 느꼈을까요? (사례A)

저는 제 감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감정은 **짜증이 아니고 섭섭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F)

학교부적용 학생은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겪으면서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 그리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짜증’과 ‘화남’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부적용 학생을 대상으로 감정과 정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다양한 감정에 대한 내용 요소를 포함해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8차시 수업 진행 시 학생들이 가장 집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했던 때는 정서적 대물림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할 때였다. 참여자 대부분은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미래의 자녀는 자신과 다르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참여자들은 우울, 무기력, 화남, 짜증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는데 이러한 점들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이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이에 참여자 대부분은 자신의 정서적 안전과 감정조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정서가 누군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서적인 거 아이들한테 대물림된다는 걸 배웠을 때 불쌍했어요 아직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볼 생각은 있어요. (사례I)

아기가 태어나면 **저랑 똑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례A)

이렇듯 참여자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감정조절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정서적 안전이라고 했다.

예전에는 제 감정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감정조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정조절을 잘못하면 자식이 그걸 따라 하고 그럼 전 속상할 것 같아요. (사례J)

저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성격을 바꿔야 돼요. 동물들도 엄마를 닮잖아요. 나중에 아이한테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분노조절 해야 해요. (사례A)

나중에 아이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감정도 잘 표현하고 욕하는 것도 조금씩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례D)

이렇듯 참여자들이 자신의 감정조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8, 9차시 68개의 감정카드를 통한 다양한 감정인식, 예비부모로서 안전한 정서 환경 제공의 중요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감정조절 중요성에 대한 학습 내용을 익히면서 자신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감정조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순간 화가 났을 때 화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 하면서 제일 많이 달라진 건 동생 돌보는 부분이예요. 저 밑에 동생이 세 명이 있잖아요. 동생이 짜증 나게 할 때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갔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예전에 저도 할머니랑 살았을 때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처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미안해요. 처음에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때려서 동생이 저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생이 조금 이해가 가요. 이제는 **동생한테 막 손으로 가기보다는 먼저 말로 타이르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엄마가 동생한테 짜증 내고 그러면 듣기 싫어요. 엄마가 동생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례J)

전에는 화가 나면 자주 울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왜 화가 났고 감정이 격해졌는지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사례H)

제 감정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화가 나면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해요. (사례A)

이렇듯 참여자들은 감정조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비부모교육 참여 이후에도 가정적, 개인적, 학교 요인으로 여전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다. 참여자 대부분은 감정조절 필요성을 느껴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기를 기대했지만, 생각만큼 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평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 피우고 먹거든요~ 지금도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진 못했지만, 해소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사례D)

스트레스받으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죠**. (사례G)

따라서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정서적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는 학생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정에 대한 설명과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 요소를 포함하여 감정조절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MOGEF(2016)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

로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예비부모 교육이 학교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가족가치관, 부모됨에 관한 정보획득, 문제해결능력 함양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부적응 학생에게 여성 가족부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17차시 중 학업부적응 학생의 수준과 동기에 맞게 총 9차시를 선정하고 일부 수정, 보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참여관찰, 사전·사후 면담, 연구일지를 분석하여 다음 세 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긍정적 자아개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가족에 대한 이해와 미래 가족 형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건강한 가정형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신념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둘째,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성행동의 중요성을 알고, 계획적인 임신을 위한 피임, 기초 돌봄에 필요한 지식,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셋째,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일상 의사소통 속에서 반영적 경청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며 감정조절을 위해 노력하는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청소년 예비부모교육 연구와는 달리,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들 대상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연구 방법은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되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급간의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관한 연구들이 확산된다면, 사례 연구에서는 밝힐 수 없었던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나 다른 연구 대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부적응 학생이라는 특수한 연구 대상에 대해 3년간 대안교실을 담당했던 연구자가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함으로써 맥락이 포함된 관찰과 진실된 면담 내용을 결과로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정 차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전 사후검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와 달리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사전 면담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 재구성성과 수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연구자가 담당하였던 것이다. 연구자가 교사로서 학생들과 자주 교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피상적인 관찰이나 응답이 아니라 긴밀한 유대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내용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점은 이 연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와 수업 진행자가 동일했던 만큼 연구자의 기대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어 긍정적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안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다른 학교의 가정과 교사들이 이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효과의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효과성이 검증된 접근성 높은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프로그램 연구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충실성(fidelity)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부모교육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기반(evidence-based program)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연구에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안한 평가 도구를 동일하게 활용하여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부모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 참여자 사례수가 적고 기초차력미달인 경우가 많아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평가도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여 연구 결과를 축적한다면, 근거 기반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학교부적응 학생에게 적용함으로써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으로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수정 제안한 9차시의 수업 내용은 학교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듈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 결과 현재 개발된 17차시의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에게 특화된 내용 요소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점도 드러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우관계의 어려움, 일탈행동으로 인한 부적응과 같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특화된 1-2차시를 추가적

으로 개발하여 기본 9차시와 함께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Babbie, E. R. (2013).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Belmont, CA: Wadsworth Cengage Learning.
- Bae, E. S., & Kang, K. J. (2008).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pre-parent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in the residential car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2(2), 173-190.
- Byun, G. Y.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roup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adapted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 Choi, B. Y. (2016, August 30). *Statistics of educatio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04&opType=N&boardSeq=64173>.
- Choi, C. M. (2013). *Development of pre-parental education program and its effectiveness verification on juveniles curriculu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H. Y. (2012). *Risk factors of adolescent school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 Chung, O. B., & Chung, S. H. (2016). *예비부모교육 [Education for prospective parents]*. Seoul: Hakjisa.
- Han, S. C. (2011). A study on the non-adaptation of school and retirement from the middle school: Current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Journal of Adolescent Behavior Science*, 16, 39-65.
- Hwang, S. G., Kim, D. M., Kang, T. H., Son, J. H., & Kim, J. H. (2016). Analysis of the nationwide survey on youth risks and risk results.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18(4), 47-70.
- Jeon, M. K. (2016, December 1).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Sejong: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trieved from http://www.mogef.go.kr/kps/olb/kps_olb_s001d.do?mid=mda710&div1=101&cd=kps&bbtSn=704395
- Ji, S. Y. (2011). *The development of pre-parent education program to reduce of youth mothers' learned helplessness in welfare cen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Jun, M., Lee, E. J., Yu, N. S., Wang, S.-S., & Choi, S. (2017). Effectiveness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9(4), 31-47.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Statistical book of online survey youth health behavior, 298-305.
-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2018).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strategies and policy plans for underachievers in general high school, 10(3).
- Kwon, D. Y., & Yoo, J. E.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havruta learning on pre-parent educatio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5(1), 77-97.
- Lee, H. K. (2009).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 and school maladjust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B. H. (2007). A study of methods for prevention schoolwork discontinuer through alternative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5(1), 69-89.
- Lim, H. L. (2013).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Noh, H. Y., Cho, J. S., & Chae, J. H. (2017).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re-parenthood educa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home economics subjec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9(4), 161-193.
- Park, M. Y. (2015).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maladjusted in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Ryu, B. R., & Shin, H. K. (2011). Going to school for school maladjusted pupils in vocational girls'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9(2), 41-72.

Seo, K. L. (2017). *A study on parenting experience of mothers with histories of childhood maltrea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Chung Nam, Korea.

Sim, U. B. (2015). *A meta-analysis of school maladjustment : focused on related triggering variables and the protective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Sun, M. S. (2017). *An analysis of school factors affecting the school maladjus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17차시 중 9차시를 일부 수정하여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10명에게 실시하였다. 예비부모교육의 참여는 관찰과 면담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자아개념 및 가족가치관의 긍정적 변화와 피임, 기초 돌봄,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의 역할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정보획득, 의사소통 및 감정조절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과 올바른 양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올바른 부모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어 개인에게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학대의 대물림을 방지하여 가정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학교부적응 학생의 긍정적인 신념의 변화와 의사소통 및 감정조절 등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은 학생의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학교부적응 학생 예비부모교육 수업은 효과적인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논문접수일자: 2019년 7월 24일, 논문심사일자: 2019년 7월 31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9월26일